2016. 4. 9. 국가직 9급 한국사 총평 및 해설

검증된 대한민국 한국사 시험 전문가 **대각국사 오태진**

● 총평

1. 출제 범위 준수

한국사 난이도 — ★★★★☆

한국사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가장 난감한 상황은, 기본 범위 밖에서 출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은 시대별, 분류별로 반드시 정리했어야 하는 기본 개념들이 출제되었습니다.

2.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낯선 '사료' 문제가 다수 출제

유형	사료형(지문제시형 포함)	직문형	순서배열형
문항수	15문제	1문제	4문제
대응 방법	**대각국사**	**요약서 · 필기노트**	**도사국사**

→ **즉, 필기노트 보다는 기본서를 활용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3.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선택 지문(보기)' 출제

오태진 교수가 평소 주창한 대로, 2문제는 처음 본 선택 지문이 출제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소거법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열단'과 '토지조사사업' 2문제는 **처음 본 선택 지문** 출제

1) 「조선혁명선언」 사료 → '의열단'

① 민족혁명당 창당에 가담하였다. 을 제외한,

② **경성 부민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③ **일본 제국의회와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④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한 투탄 계획을 추진하였다.**

2) '토지 조사 사업'

①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②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③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④ **본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

4. 오랜만에 출제된 문제 : 사실로서의 역사 vs 기록으로서의 역사

2009년 이후로 출제되지 않았던 역사학의 바른 이해 테마가 출제된 것은 약간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범위를 줄여가며 공부하는 것은 고득점 획득에 다소 위험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무 자르듯 암기'하는 방법의 폐단이 드러난 시험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정통으로 공부한 한국사 오태진 교수가 평소 주창한 대로, 요약서 위주로 공부한 경우, 처음 본 사료형 문제나 낯선 선택지문이 출제되면 당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수험생들의 공부 방법의 대세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수험생 중, 시간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기본 강의를 듣는다거나 기본서 정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혹은 '요약서'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본 개념을 최대한 빨리 익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요약서이다 보니 암기과정에서 오해하여 이해하는 개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2016년도 국가직 한국사에서 출제된 문제 가운데도 '수험생들을 당황케 한 문제가 2문제가 있었습니다. 노트나 요약서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많이 틀린 문제 분석 - 한국사 ②책형

문항	출제 유형		예상 정답률
15번	의열단	부민관 사건 포함 여부	33%
16번	대한제국	중추원의 기능	38%
20번	토지조사사업	임야 포함 여부 신고할 내용의 세부 사항 토지가옥증명규칙	26%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나 ① 강의노트나 요약서만 활용하거나, ② 대각국사 기본서 정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렇게 3개 정도에다가 기본 개념 1~2개 정도를 틀려서 75점~80점 정도 득점**하여 합격에 실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 합격 가능한 한국사 점수

① 나머지 공통 과목(국어 · 영어) 도합 : 180점 미만인 경우에는 90점 이상

② 나머지 공통 과목(국어 · 영어) 도합 : 180점 이상인 경우에는 85점

이 결과는 합격을 위해서는 **한국사에서 적어도 90점은 득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무 자르듯 암기'하는 형태로 공부하게 되면 4개 정도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80점을 득점한 학생 다수), 이는 수험생의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합격 점수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 90점 이상 획득을 위한 대책

한국사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기본서)을 정확한 인과 관계를 통해서, '진짜' 한국사를 전달하는 강의 내용을 최대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016년 국가직 9급 한국사 출제 비중표 - 오태진 교수 제공

시 대	주 제	문항수	전근대사
역사학~	· 사실로서의 역사 VS 기록으로서의 역사 · 고조선 : 기자 이전 · 위만 구분하기	2	13문제
고 대	· 고구려 소수림왕의 업적 · 백제사(처음부터 끝까지 통합) · 통일 신라 진골의 경제적 기반 · 풍수지리 사상(도교와 구분하기)	4	
고 려	· 충선왕의 업적 · 전시과(경정) · 역사서(삼국사기 · 삼국유사)	3	
조 선	· 임진왜란 전투 순서(한 · 진 · 평 · 행) · 대동법 ·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변동 · 이황	4	
개항기	· 외국과 체결한 조약 내용 숙지 · 갑신정변 · 대한제국기의 상황(통합)	3	근현대사
일제 시대	· 토지조사사업 · 조선혁명선언과 의열단 · 1920년대 무장 투쟁	3	**7문제**
해방 이후	· 모스크바 3상회의	1	

● 해설

2016년 국가직 9급 한국사 시험 문제는 **오태진 교수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형태로 출제**되었다.

① 사료형이 많이 출제될 것이므로 시험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한국사 관련 상세한 배경 지식과 개념이 필요하며,
② 2문제는 100점 방지용으로 낼 것이므로, 요약서가 아닌 기본서와 기본 강의에 충실할 것 → 소거 기법을 통해서 고득점이 가능하다.
는 것이었다.

이번 2016년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는 역시 최고 수준의 시험답게 명불허전이었다. 다름 아닌, '제대로' 한국사를 공부한 학생들이 고득점 획득이 가능했을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제시된 해설은 '**최고 수준의 전공 서적과 원서를 기반**'으로 작성했으므로, 오태진 교수의 제자 및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확인 의식의 성격과 '다른 곳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까지 있으므로' 오태진 교수의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1.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가) 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려 인종 때 편찬되었다. 본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 등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은(는) 충렬왕 때 한 승려가 일정한 역사 서술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저술한 역사서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 설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① (가) -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하였다.
② (가) -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였다.
③ (나) -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양하였다.
④ (나) -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정답 : ③
(가) 삼국사기
(나) 삼국유사

① **삼국사기(X → 삼국유사)** -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하였다.
② **삼국사기(X → 동명왕편[단, 고려의 경우])** -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였다.
③ 삼국유사 -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양하였다.(O)
④ **삼국유사(X → 삼국사기)** -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그는 즉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는 등의 관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① 만권당을 통해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 교류에 힘썼다.
②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③ 철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④ 기철을 비롯한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자주적 반원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답 : ①
그 : 충선왕.
① 충선왕은 만권당을 통해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 교류에 힘썼다.**(O)**
② **충선왕은(X → 충렬왕)**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③ **충선왕은(X → 우왕)** 철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X → 하려 하였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④ **충선왕은(X → 공민왕)** 기철을 비롯한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자주적 반원 개혁을 추진하였다.

3.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①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
②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③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④ 동일한 사건 또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사료와 비교·검토해 본다.

정답 : ①

①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X)**
→ 사료는'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역사가 자신의 사관을 기준으로 기록한 것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할 수 없다.)

☞ ②, ③, ④번 선택 지문은 ①번 문장이 틀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4. 다음 결정문에 근거하여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①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② 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③ 유엔 감시 하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④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정답 : ①

모스크바 3상 회의(1945. 12)

①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O)
②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X → 해방되자 조선건국동맹이 개편되어)**, 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③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X → 미 · 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유엔 감시 하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④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X → 해방 직후)**, 한반도에서 **미군과(1945. 9. 9)** **소련군의 군정이(1945. 8. 24)** 시작되었다.

5. 밑줄 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4~5명의 개화당이 사건을 일으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하였다. …(중략)… 종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조야(朝野) 모두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매국배종(賣國背宗)하였다'고 하였다.
>
> -『윤치호일기』-

①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②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③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④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정답 : ④
갑신정변(1884).

① **갑신정변은(X → 아관파천)**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 **<대각 플러스>**
>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와 아관파천**
> 1895년 10월의 왕비살해사건(乙未事變)을 일본은 조선 내부의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고 둘러댔으나, 직접 그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을미의병과 정동구락부를 중심으로 한 구미파 관료 세력과 왕실 측근세력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 가운데 특히 미국공사관과 선교사들은 일본에 대하여 강한 반발을 보이고 고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당시 연금상태에 있었던 고종을 미국공사관으로 피신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한 **춘생문(春生門) 사건**에 일부 선교사가 직접 참여하기까지 하여 그후 미국 정부로부터 견책을 받기도 했다.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불간섭정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무력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열강간의 분쟁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었다.
> 이후, **정동구락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고종의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피신(俄館播遷)**은 이러한 기조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즉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의한 일종의 정치적 망명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고종의 피신 직후 대포까지 동원하여 러시아공사관을 포위하고 환궁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② **갑신정변 때(X → 을미사변 때, 일부 조선 훈련대 병력 : 우범선 등)**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③ **갑신정변은(X → 임오군란)** 차관 도입을 위한 **(3차)**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④ 갑신정변 때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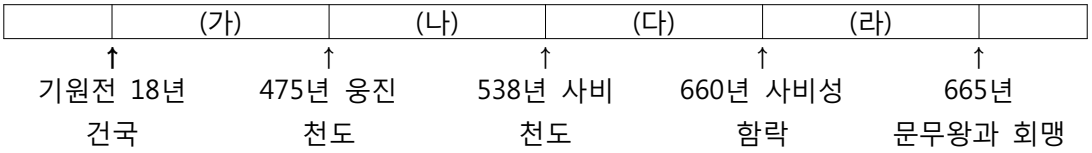
6. 개항기 체결된 통상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① 조일통상장정(1876) -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② 조청수륙무역장정(1882) - 서울에서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되었다.
③ 개정 조일통상장정(1883) - 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④ 한청통상조약(1899) - 대한제국 황제와 청 황제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 ①

① **조일통상장정(X → 개정 조일통상장정)** -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 참고 : 조일통상장정의 본래 명칭은 **조일무역규칙**이다.

7. (가)~(라)의 시기에 해당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 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통치 체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② (나) - 남쪽의 마한 잔여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하여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③ (다) -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했으나 얼마 후 신라에게 빼앗겼다.
④ (라) - 복신과 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성의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정답 : ②

①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 고이왕(3세기)은 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통치 체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O)
② **475년 웅진 천도 ~ 538년 사비 천도 사이에 근초고왕이(X → 근초고왕의 활동은 4세기) …**
③ 성왕(6세기)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했으나(551) 얼마 후 신라에게 빼앗겼다.(553)(O)
④ 백제는 사비성 함락(멸망) 이후, 복신과 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성의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O)

8.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통일신라시대의 신분층과 연관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그들의) 집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奴僮)이 3천 명이며, 비슷한 수의 갑병(甲兵)이 있다. 소, 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 잡아 먹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 주어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부린다.
>
> -『신당서』-

① 관등 승진의 상한은 아찬까지였다.
② 도당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③ 돌무지덧널무덤을 묘제로 사용하였다.
④ 식읍 · 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다.

정답 : ④

진골 귀족

① **진골 귀족의(X → 6두품)** 관등 승진의 상한은 아찬까지였다.
② **진골 귀족은(X → 6두품)** 도당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③ **통일 이후 진골 귀족은 돌무지덧널무덤을(X → 화장, 소규모 굴식돌방무덤)** 묘제로 사용하였다.
④ 진골귀족은 식읍 · **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다.(O)

통일신라 경덕왕 이후 진골 귀족의 전장(田莊) 확대

녹읍의 부활은 토지에 대한 국가의 통제장치인 토지제도가 다시금 해이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민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지배장치에도 상당한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중앙의 귀족세력을 위시하여 지방의 유력세력들은 합법적·비합법적으로 토지를 겸병하여 이를 **'전장(田莊)'**의 형태로 경영하는 경향이 유력하게 대두되었으며, 그들의 소유토지를 경작하는 민에 대한 포괄적 지배수탈 역시 다시 강화되어갔다. 8세기 후반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광범하게 퍼졌다.

… 9세기 말엽에 이를수록 토지소유의 집중화 현상은 더욱 증대되었다. 귀족 세력들은 자신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녹읍과 **전장(田莊)**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귀족세력에 의한 전장화(田莊化)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농민의 토지 상실을 수반하였다. 이로써 국가의 재정기반이 더욱 약화되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국가의 수탈은 보다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토지상실과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몰락 농민층은 귀족세력의 예속민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농촌을 떠나 유망민이 되었다. … 사원의 토지나 **전장**은 지방 각지에 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사원은 지장(知莊)을 파견하여 그것을 관리했다.

① "遂於乾符六年 捨莊十二區田五百結 隸寺焉"
: 879년 지증대사(智證大師)가 12구(區)의 전장 500결 이상 소유
『조선금석총람』상, 지증대사적조탑비명.

② 해인사가 880년(헌강왕 6)·882년·885년·891년(진성여왕 5)·894년에 **전장**을 사들였다는 전권(田卷) 43폭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③ 전남 담양군에 그 터가 남아 있는 개선사(開仙寺)에서도 891년에 논을 매입한 기록이 전한다.

9. 임진왜란 때의 주요 전투를 벌어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6 국가직 9급)

ㄱ.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ㄴ.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ㄷ. 진주목사 김시민이 왜의 대군을 맞아 격전 끝에 진주성을 지켜냈다.
ㄹ.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의 수군을 격퇴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① ㄱ→ㄴ→ㄷ→ㄹ
② ㄱ→ㄷ→ㄴ→ㄹ
③ ㄹ→ㄴ→ㄷ→ㄱ
④ ㄹ→ㄷ→ㄴ→ㄱ

정답 : ④

임진왜란, 암기법! 기억나지요? ㅋㅋ ^^

ㄹ. 한산도 대첩(1592. 7)
ㄷ. 진주 대첩(1592. 10. 5 ~ 10. 11)
ㄴ. 평양성 탈환(1593. 1.28)
ㄱ. 행주 대첩(1593. 2. 12 ~ 2. 18)

10.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모리배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 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 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 더 큽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①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②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③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④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정답 : ②
대동법.
① 대동법은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O)
② 대동법은 **인조(X → 광해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③ 대동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O)
④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O)

11. **밑줄 친 '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 왕 재위 2년에 전진 국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며 불상과 경문을 전해왔다. (이에 우리) 왕께서 사신을 보내 사례하며 토산물을 보냈다.
> ○ 왕 재위 5년에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머물게 하였다.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법(佛法)의 시작이었다.
>
> -『삼국사기』-

① 역사서인『신집』을 편찬하였다.
② 진휼 제도로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③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하였다.
④ 왜에 종이와 먹의 제작 방법을 전해 주었다.

정답 : ③
고구려 소수림왕.
① **소수림왕 때(X → 영양왕)** 역사서인『신집』을 편찬하였다.
② **소수림왕 때(X → 고국천왕)** 진휼 제도로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③ 소수림왕은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하였다.(O)
④ **소수림왕 때(X → 영양왕 때 담징은)** 왜에 종이와 먹의 제작 방법을 전해 주었다.

12.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① 대종교 계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하였다.
②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③ 민족 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부를 결성하였다.
④ 한국독립군이 한·중 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하였다.

정답 : ④

① 1920년대 **대종교 계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하였다**.(O)

→ **자유시 참변을 겪은 대한독립군단은 대종교 간부 서일을 총재로 하여 조직되었다.**

② 1920년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O)

③ 1929년 민족 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부를 결성하였다.(O)

④ **1920년대(X → 1933년)** 한국독립군이 한·중 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하였다.

13.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갖은 방법으로 군역을 회피하고 있다. 간사한 아전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幼學)이라 칭하면서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 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한다. 호적이 밝지 못하고 명분의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
>
> -『일성록』—

① 사족들이 형성한 동족 마을이 증가하였다.

② 향회가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변질되었다.

③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재소가 설치되었다.

④ 부농층이 관권과 결탁하여 향임직에 진출하였다.

정답 : ③

모칭유학 · 환부역조 → 군역 회피 목적 : 조선 후기

① 조선 후기 사족들이 형성한 동족 마을이 증가하였다.(O)

② 조선 후기 향회가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변질되었다.(O)

③ **조선 후기(X → 조선 전기, 15세기)**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재소가 설치되었다.

④ 조선 후기 부농층이 관권과 결탁하여 향임직에 진출하였다.(O)

14.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이 사람은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곧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상복을 입었다. 삼년상이 끝나고 관직에 복귀하였으나 을사사화 등으로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이내 관직 생활의 뜻을 접고, 1546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향리로 퇴거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후 경상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원하여 실현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조선 왕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다.

① 서리망국론을 부르짖으며 당시 서리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 하였다.

② 아홉 차례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③ 주희의 성리설을 받아들였으며, 이기철학에서 이(理)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④ 우주자연은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보았다.

정답 : ③

이황.

① **이황은(X → 조식)** 서리망국론을 부르짖으며 당시 서리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 하였다.
② **이황은(X → 이이)** 아홉 차례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③ 이황은 주희의 성리설을 받아들였으며, 이기철학에서 이(理)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O)
④ **이황은(X → 서경덕)** 우주자연은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보았다.

15. 다음 선언문을 강령으로 했던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즉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① 민족혁명당 창당에 가담하였다.
② 경성 부민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③ 일본 제국의회와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④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한 투탄 계획을 추진하였다.

정답 : ②
의열단.
① 의열단은 민족혁명당 창당에 가담하였다.(O)
② **의열단은(X → 1945년 7월 조문기 · 유만수 · 강윤국)** 경성 부민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부민관(府民館)**
>
> 1935년 경성부가 현재의 서울특별시 중고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시의회 자리에 세워졌던 부립극장(府立劇場)
>
> **부민관 폭파 의거**
> 1945년 7월 24일 친일단체인 대의당이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민화(皇民化)를 앞세워 태평양 전쟁에 젊은이들의 참여를 선동하기 위해 개최한 '아세아 민족 분격대회'를 막기 위해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 등 독립투사들이 친일파와 일본 고위관료들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다.

③ 의열단은 일본 제국의회와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O)

> 의열단은 1923년 가을 동시다발적 폭탄거사를 추진했으나 자금난과 기밀누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때 착안한 작전이 **제국의회 회의장을 급습**하여 이에 출석한 고위 관료, 군벌, 총독 등을 한꺼번에 몰살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923년 9월에 있었던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 원혼을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
> 워낙 열악한 상황과 비밀리에 추진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40세 가까운 나이의 김지섭 선생이 단독 결행을 자원하게 됩니다. 그는 아편 밀수업자로 위장해 석탄창고에 몸을 숨기고 일본에 도착하여 도쿄로 향하던 중 신문 기사를 보게 되는데, **제국의회가 마침 휴회중이라는 기사가 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김지섭 선생은 제국의회 대신에 황궁에 폭탄을 던지기로 하고 황궁으로 향합니다**.
>
> 결국 일왕이 살고 있는 구성 앞 광장에 도착한 김지섭 선생은 궁성 입구의 **니주바시(이중교)**를 향해서 3발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3발 모두 불발로 끝나버렸습니다. 당시 폭탄 성능의 한계와 오랜 항해로 인한 습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김지섭 선생의 이중교 투탄 의거입니다. 그리고 김지섭 선생은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1928년 2월 옥중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 『약산 김원봉 평전』, 김삼웅

④ 의열단은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한 투탄 계획을 추진하였다.(O)

의열단원 김상옥
1921년 11월 임시정부(김구, 이시영, 조소앙, 신익희 선생 등) 수뇌부 및 김원봉(의열단)과 협의 총독 처단, 총독부 폭파 등을 위해 무기를 지원 받고, 동지 안홍한 대동
1922년 12월 서울 잠입
1923년 1월 3차례 서울 시가전 전개

16.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추진한 정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외국 사람들이 조계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의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 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잔폐(殘廢)한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또한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다. 탑동(塔洞) 등지에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든다 하니 …(중략)… 결국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이 될 것이다.

- 매일신문 -

①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②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다.
③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④ 한성전기회사를 통하여 서울에 전차노선을 개통하였다.

정답 : ③

1902년 지계발행의 원칙은 종래의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당시 성행하던 **외국인의 내지에서의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대각국사』, 오태진

∴ 대한제국 광무개혁 시기임을 알 수 있다.

① 대한제국은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았다.(O)
→ 아관파천 후 약 1년 만에 고종은 자주 독립의 근대 국가를 세우려는 국민적 열망과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려는 국제 여론에 힘입어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하였다.
② 대한제국은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다.(O)
→ 일본 금융 기관이 침투하여 일본 상인과 기업들을 지원하자, 우리 나라 상인과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은 조선은행(1896) · 한성은행(1897) · 대한천일은행(1899) 등이 설립되었다.
③ 대한제국은 **중추원을 개조하여(X → 1897년 교전소 · 사례소)**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 …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서양제도를 절충한다는 뜻으로 '**구본신참**'을 표방하고 **교전소**(校典所, 3.23)와 **사례소**(史禮所, 6. 3)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개혁 작업에 나섰다.
④ 대한제국은 한성전기회사를 통하여 서울에 전차노선을 개통하였다.(O)
→ 1899년 서대문과 청량리 홍릉간에 전차(電車) 선로를 부설

17. 밑줄 친 '이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신라 말기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서 유행한 이 사상을 전하였다. 이는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 주택 · 묘지 등을 선정하는, 경험에 의한 인문 지리적 사상이다. 아울러 지리적 요인을 인간의 길흉 화복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자연관 및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

① 신라 말기에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일반 백성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② 신라 말기에 호족이 자기 지역의 중요성을 자부하는 근거로 이용하였다.
③ 고려시대에 묘청이 서경 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④ 고려시대에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초제로 행하여졌다.

정답 : ④
풍수지리 사상

① 풍수지리 사상은 신라 말기에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일반 백성의 인식**이 반영되었다.(O)
→ 풍수지리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비보사탑(裨補寺塔)의 사고가 담겨 있다.
경문왕 6년(866)에 원랑대통이 중국에서 귀국하여 스승인 낭혜무염을 승엄산 성주사에서 모시다가 다음해 여름 월악산 월광사(月光寺)로 이주했을 때의 일을 전한다. 다음해 봄에 그 산문을 나와 ×××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여름나절 꿈속에서 월악산 산신령이 나타나 그곳으로 모시고자 하였다. 또한 새벽녘에 사형인 자인선사가 편지를 보내와 권하기를,

> "월광사라는 절은 신과 같은 스님이던 도증(神僧 道證)이 창건한 곳일세. 과거 우리 태종대왕께서 **백성이 도탄에 빠진 것을 가슴 아파하고 괴로움의 바다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우리 삼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온 나라를 통일한 때에**, 부처와 보살들의 가호에 힘입어 길이 삼계의 재앙을 물리치셨다고 하여 특별히 이 산을 봉해주었으니, 일찍이 『금강경』에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선기』(仙記)에도 그 이름이 전해오네. 맑고 시원한 개울과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안개라든가 사방에 즐비하게 서린 빼어난 신령한 기운 속에 불전 또한 갖추어져 있으니, 자네는 그곳에 머무시게나"

하였다.

「월광사 원랑선사 대보선광탑비」

② 풍수지리 사상은 신라 말기에 호족이 자기 지역의 중요성을 자부하는 근거로 이용하였다.(O)
→ 신라 말 지방사회에서 **민중 깊숙이 침투했던 풍수지리설은 후삼국을 분수령으로 역전현상이 일어나 다시 지배자의 전유물로 전락하였다**. 다시 말해, 신흥세력들이 자신의 근거지를 새 역사의 중심무대로 내세움으로써 세력형성을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데 이용하였다면, 왕건의 「훈요 10조」는 그것이 권력의 정점으로 독점되어 극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풍수지리 사상은 고려시대에 묘청이 서경 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O)

④ **풍수지리(X → 도교)** 사상은 고려시대에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초제로 행하여졌다.

18. **전시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제도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6 국가직 9급)**

시정 전시과 (경종 1년, 976)	→	개정 전시과 (목종 1년, 998)	→	(가) (문종 30년,1076)

<보 기>

ㄱ.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ㄴ. 산직(散職)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ㄷ.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하였다.
ㄹ.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 ④
경정전시과
ㄱ. **경정전시과는(X → 시정전시과)**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ㄴ. 경정전시과는 산직(散職)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O)
ㄷ. 경정전시과는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하였다.(O)
ㄹ. 경정전시과는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O)

19. **(가)와 (나) 시기 고조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2016 국가직 9급)**

	(가)	(나)	
↑	↑	↑	
기원전 2333년 단군의 등장	기원전 194년 위만의 집권	기원전 108년 왕검성 함락	

<보 기>

ㄱ. (가) -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ㄴ. (가) - 고조선 지역에 한(漢)의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ㄷ. (나) -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중계 무역의 이득을 취하였다.
ㄹ. (나) - 비파형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 지역을 알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 ①
(가) 단군ㆍ기자조선
(나) 위만조선

ㄱ. 단군ㆍ기자조선 -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O)
ㄴ. **단군ㆍ기자조선(X → 위만조선)** - 고조선 지역에 한(漢)의 **창해군이 설치되었다(B.C 128년)**.

<대각플러스+>
창해군(滄海郡)은 무엇일까?

""예군남려등반우거"(俀君南閭等畔右渠) 동이 예군남려가 우거에 반대하여 호 28만 구를 이끌고 한무제에 항복해오자 그 지역에 **창해군**을 두었다(기원전 128년)"
『후한서』 동이전 예조

→ 위의 기록에서 기원전 128년 이전에 위만조선이 원고구려왕국으로 추정되는 예맥사회를 복속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제 즉위 후 한은 위만조선에 반기를 든 ***예군남려**가 요동군에 내속한 것을 기화로 **창해군**을 설치하여 위만조선의 팽창기도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예맥계 사회와 한제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한의 기도는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군남려 - '원(原, proto)-부여'
전한은 '예지의 군장(君長)'을 뜻하는 '예군'(濊君)에서 '예지의 왕'인 '예왕'(濊王)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ㄷ. 위만조선 -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중계 무역의 이득을 취하였다.(O)
ㄹ. **위만조선(X → 단군ㆍ기자조선)** - 비파형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 지역을 알 수 있다.

2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①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②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③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④ 본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

정답 : ②

①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X)**
→ 임야조사령(1918) : 국ㆍ공유림과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산림 → 일본인에게 이전
산림의 50% 이상을 총독부와 일본인이 강점

②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O)
→ 오태진, 기본서『대각국사』에 실려 있는 내용을 참조하자. 제17관이 사료로 출제되었고, 제4관이 선지 중에 정답으로 출제되었다.

토지조사령(1912)

제1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의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관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査定)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조선총독부관보』(1912. 8. 13)

③ **토지조사사업에서(X → 1918년 지세령 개정)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대각 플러스+>

지세 부과 방식의 변화

합병 초기에는 결수연명부에 의해 지세를 부과하였으며, 1914년 지세령을 제정한 뒤에도 이러한 관계는 계속되었다.

1915년 '지세령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토지대장이 있는 군은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을 작성하고 결수연명부를 폐지하였으나, 다른 군은 결수연명부를 계속 사용하였다. 즉, 이 시기에는 토지대장이 있는 곳은 과세표준으로서의 지가가 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가제(結價制)에 의한 지세납부체계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세명기장이 새로운 토지대장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가란을 삭제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는 아직 '**1.3퍼센트**'라는 지세율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될 필요도 없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지가는

1918년 지세령 개정

에 의해 과세표준으로 이용되었다. **종래의 결부제에 의한 지세부과방식 대신 지가의 1.3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1.3퍼센트라는 지세율의 결정은 정치적인 배려가 많이 작용한 것이었다**.

지세령을 개정한 결과 1918년의 지세는 전년에 비해 150여만 원으로 17퍼센트 증가하였다.

④ **본 법령에 따라(X → 통감부 설치 이후)**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